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게 듣는다



국내 최대 항만노동자 단체인 부산항운노조 김상식 위원장의 임기가 2019년 5월에 만료된다. 2013년 처음 위원장에 선출돼 2016년 재선에 성공한 그는 노조 단독으로 행사해 비리의 요인으로 지목받던 항만 노무인력 채용권을 노사정협의체 채용제도로 전환하는 등 노사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6년 동안의 감화와 향후 계획을 들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과 성과는.

2013년 처음 취임한 직후에도 조직 내 갈등과 반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산항운노조의 조직 안정이 항만을 비롯한 부산지역 하역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부산항운노조의 옛 명성과 정통성 회복을 위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부정취업 등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합원 채용제도와 지방 선거제를 전면 개편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처벌 및 징계 규정을 개정해 도덕적이고 투명한 노동조합상 구현에 노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협의회', '항만 자동화 노사정 대표 협의회', '부산항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사회적 가치 실현 시민 참여단' 등 부산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활동 참여와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부산항 노사정 평화 관계 정착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노사 상생이 곧 부산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 무인 자동화에 대한 입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부산항에도 생산성 향상이나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무인 자동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노조 역시 협조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북항 허치슨 터미널 사용기한 만료 문제를 비롯해 북항

통합개발 등에 따른 기존 부산항의 일자리 및 고용 문제가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와 노사정이 공동 협의회를 구성해 무인 자동화 도입에 따른 타당성과 도입 시기, 장소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연구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향후 그 결과를 토대로 부산항의 현실에 맞는 '부산항식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을 조합원 복지향상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는데.

2017년 처음 개최한 '부산항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가 2018년 제2회를 거치면서 항만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사정이 대거 참여해 명실상부한 부산항 축제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범조합원 해외연수, 장학금 증액, 퇴직 조합원 노후 대비 교육 시행 등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끼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복지정책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공사는 10월 24일 부산해양수산청에서 '항만 자동화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일자리 대책 등 마련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이준갑 부산항만물류협회장.

지난해 부산항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

지난해 여름 무더위 속 하역작업 중에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하역 장비 결함이나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조합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공사 등에 노사정 공동 안전관리 상설 협의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 상태입니다. 자체 안전교육도 강화해 안전한 하역작업 환경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년을 되돌아보면.

부산항운노조에 평조합원으로 가입해 반평생 '부두밥'을 먹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임기를 마친 뒤에도 어떤 위치에서든지 저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며 부산항은 물론 대한민국 항만 산업과 하역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



화물고정작업 안전케이지 전달식



모범조합원 해외연수